



전통을 자랑하는 제148회 디 오픈 챔피언십이 18일(한국시간) 영국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에서 개막한다. 북아일랜드에서 디 오픈이 열리는 것은 1951년 이후 68년 만이다. 파도가 치는 해변 바로 옆에 위치한 그린 주변에서 선수들의 연습 라운드를 지켜보는 갤러리(왼쪽 사진).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16일 연습라운드 도중 타구를 지켜보고 있다.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 통산 16번째 메이저 타이틀 획득에 도전한다. 엔트림(영국) | AP뉴시스·디 오픈 홈페이지 캡처

전반기 무승 박인비  
“퍼트가 2% 아쉬워요”



박인비

모두가 칭송하는 '골프 여제'에게도 고민이 생긴 모양이었다.

자타공인 '퍼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인비(31·KB금융그룹)가 남몰름 고민을 털어냈다.

자신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원동력이었던 퍼트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자 '여제' 답지 않은 뉘그러리를 조심스레 늘어놓았다.

박인비는 16일 경기도 용인시 메르세데스스벤츠 전시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시즌 마음에 드는 경기를 하고 있다. 다만 퍼트가 아쉽다. 라운드당 퍼트 숫자가 28~29개로만 떨어졌다면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았을까 한다”면서 우승이 없는 전반기를 되돌아봤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9승을 달성한 박인비의 최대 무기는 바로 퍼트다. 그러나 박인비는 올 시즌 주요 승부처에서 퍼트가 난조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 우승을 놓쳤다. 컷 탈락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아쉬운 준우승을 두 차례 기록한 이유다. 박인비는 “전성기를 되돌아보면 '비정상'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퍼트가 잘 됐다”고 웃은 뒤 “지금은 거리감 문제도 있고 스트로크도 일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LPGA 투어는 25일(한국시간)과 다음달 1일 각각 프랑스와 영국에서 예비망 챔피언십과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연달아 진행한다. 4년만의 메이저 우승을 위해 21일 출국하는 박인비는 “최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했다. 물론 연습도 빼놓지 않았다. 샷감각은 물론 체력도 문제가 없는 만큼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해 두 메이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인 | 곽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26일 유벤투스와 싸울 '팀 K리그' 최종 확정

호날두의 창, 빛현우 방패로 막는다

(대구 GK 조현우)

조현우, 유일하게 6만표 이상 득표  
K리그 박주영-이동국-타가트 3팀  
김보경-세징야-믹스 MF라인 가동

팀 K리그 명단 (4-3-3 포메이션 기준)		
포지션	선수(소속)	득표수
FW	박주영(서울)	2만8982
	이동국(전북)	2만6673
	타가트(수원)	2만1991
MF	세징야(대구)	5만6234
	김보경(울산)	3만7721
	믹스(울산)	2만3590
DF	이홍(전북)	5만3030
	오스마르(서울)	3만7991
	박주호(울산)	3만3295
GK	불투이스(울산)	2만6222
	조현우(대구)	6만2938

\* 경기위원회 선정 (약일드9) = 완델손(포항) 윤일록(제주) 에델(성남-이상 FW) 요빛가람(상주-MF) 홍철(수원) 김진애(인천) 발렌티노스(강원) 이광선(경남-이상 DF) 송범근(전북-GK)  
\* 감독 = 모라이스 전북 감독, 코치 = 김도훈 울산 감독, 최용수 서울 감독



호날두

조현우

조현우(대구)가 유벤투스(이탈리아)를 상대할 '팀 K리그' 최고 스타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유벤투스와 친선전(26일·서울월드컵경기장)을 앞두고 팬들이 직접 뽑은 베스트 11과 연맹 경기위원회가 선정한 9명 등 총 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진행된 팬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 영예는 6만2938표를 얻은 골키퍼 조현우(대구)에게 돌아갔다. 6만표 이상 득표자는 조현우가 유일하다.

올 시즌 대구의 선전은 물론이고 국가 대표팀 수문장으로도 맹활약한 조현우

는 골키퍼 부문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체 투표에서도 최고의 별호 우뚝 섰다. 이로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창과 조현우의 방패 대결이 불만하게 됐다.

베스트11은 4-3-3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선발한 가운데 박주영(서울)과 이동국(전북), 타가트(수원)가 공격수로 뽑혀 유벤투스의 골문을 정조준 한다. 우상인 호날두와 대결을 앞두고 의욕을 보였던 세징야(대구)는 전체 2위이자 미드필더 최다인 5만6234표를 얻었다. 김보경과 믹스(이상 울산)도 세징야와 함께

미드필드 라인에 합류했다.

수비에서는 박주호와 불투이스(이상 울산), 오스마르(서울), 이홍(전북)이 선정됐다. 이들 중 이홍이 가장 많은 5만3030표를 얻었다. 이번 투표에서 가장 아쉬운 선수는 홍철(수원)이었다. 3만2274표로 3만3295표의 박주호와 왼쪽 수비 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였지만 2위에 그쳤다.

경기위원회가 추천한 9명에는 골키퍼 송범근(전북)을 비롯해 완델손(포항), 윤일록(제주), 에델(성남), 윤빛가람(상주), 발렌티노스(강원), 이광선(경남), 홍철(수원), 김진애(인천)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팀 K리그를 이끌 코칭스태프에는 전북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지난해 우승팀 감독 자격으로 일찌감치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김도훈 울산 감독, 최용수 서울 감독이 코치로 벤치에 앉는다.

최현일 기자 choihg2@donga.com

20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첨단 생명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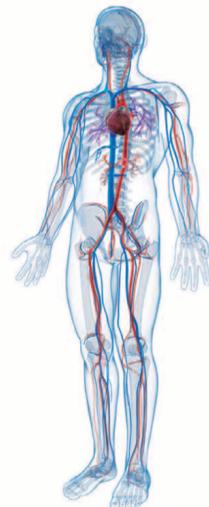
선진 재생의료 어디까지 왔는가 “설명회 개최 전화예약 접수중”

온 인류의 적 각종 “암”, 난치성 질환, 노인성 질환, 급만성 질환 신경계 질환, 각종 성인병, 안티에이징, 원인불명 질환, 난치병 등의 극복을 위한 해외 첨단 생명과학 선진 재생의료(세포치료) 어디까지 왔는가? - “설명회 개최”

당신은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중에 있습니까?

아래 질병에 해당되는 분들께 첨단 생명과학 선진 재생의료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정보(책자 유상) 제공  
첨단 면역항암치료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정보(책자 유상) 제공

각종 “암”, 간경변증, 폐섬유증,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폐증, 다제내성 결핵, 천식,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뇌손상 후유증, 파킨슨, 혈관성 치매(알츠하이머) 안면마비, 신경통, 두통(원인불명), 척추신경손상, 갑상선 기능이상, 다발성 경화증, 심근경색, 만성신부전증, 심부전, 협심증, 버거씨병, 혈관염증 및 괴사증, 혈우병, 재생 불량성 빈혈, 만성 췌장염, 크론병, 루프스(홍반성 낭창), 대상포진, 면역질환, 혈액정화, 피부괴사증, 1,2형 당뇨, 당뇨성 족부궤양 당뇨 합병증, 당뇨성 신부전증, 지방간, 위장장애, 위식도 역류질환, 부신백질 이영양증, 고셔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척추통증, 골관절염, 연골손상 류마티스, 탈모, 무모증,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아토피 피부염, 안티에이징, 동안술, 만성피로, 불면증, 갱년기 증후군, 병명을 알지 못하는 질환 등



- 서울 1522-7389
- 경기 1522-6589
- 충주/충북 1522-5697
- 대전/충남 1522-5697
- 대구/경북 1522-5697
- 부산/경남 1522-5697
- 전주/전북 1522-5697
- 광주/전남 1522-5697
- 강원도 1522-5697
- 제주도 1522-5697